

〈절규〉-1893년, 마분지에 유채, 템페라, 파스텔, 91\*73, 오슬로 몽크 미술관 소장

- 잠재의식을 표출했던 몽크 -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지는 못한다. 삶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기에 모든 것이 스트레스다. 그렇다고 현실의 불만을 마음껏 표현하고 살지도 못한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순간부터 남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할까봐 현실이 주는 압박감을 가슴 속에 쌓아만 둔다.

누구나 느끼는 삶의 불안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화가가 몽크다. 몽크에게 죽음은 그의 예술세계의 기본 색조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출발한다. 몽크는 5살 때 폐결핵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며 14살 때에는 사랑했던 누나 역시 폐결핵으로 죽는 것을 경험했다.

따라서 몽크는 가족들의 건강상태에 민감했지만 남동생과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몽크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 〈절규〉다. 몽크는 이 작품을 유화나 석판화, 동판화 등 다양한 재료를 써서 50여점을 남겼다.

이 작품은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불안과 고독을 표현하였다. 깊은 절망을 느낀 인간은 절규하지만 자연은 핏빛 하늘 너머로 메아리를 던질 뿐 아무런 위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몽크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피로를 느껴 멈춰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핏빛과 불의 헛바닥이 검푸른 험만과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었지만 나는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다. 그 때 난 자연을 관통하는 끝없는 절규를 들었다.” 라고 1862년 일기에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몽크는 이 작품을 대담한 사선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화면 위의 붉은 구름은 마치 하늘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몰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 귀를 막고 있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상을 주지만 인물은 자연에서 메아리 되어 온 자신의 절규를 듣고 있다.

몽크는 세기말 분위기의 새로운 사상 ‘보헤미아(사회문제와 성도덕 예술의 혁명. 철저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이념)’ 운동에 공감하고 있어 철저하게 빠져든다. 암울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반항이었다. 몽크는 이 때 형성된 인생관, 여성관, 예술관이 평생을 지배하는데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

를 주었다면 사랑은 독신이었던 그에게 인생의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안겨 주었다. 또한 그는 사랑 때문에 평생 방랑벽을 얻게 되었으며 여자는 남자를 고통에 빠뜨리는 존재로 여기는 여성관을 갖게 되었다.

몽크가 독특한 여성관을 가지게 된 원인은 세 살 많은 헤이베르그 부인과의 사랑 때문이었다. 보헤미안 적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몽크는 자신의 욕망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그녀에게 빠져 들었다.

헤이베르그 부인과의 불륜은 몽크에게 새로운 쾌감, 육체적 욕망을 선사한다. 하지만 몽크는 첫사랑의 설렘과 새로운 정령로 사로잡혀 있을수록 거침없는 그녀의 자유분방한 행동에 고통 받았다. 몽크는 연애 기간 내내 순수한 자신의 사랑과 달리 자유연애주의자인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의심과 질투 휩싸였고 그녀의 거짓말에 끊임없이 격분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몽크가 파리 유학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지만 몽크는 여자의 거짓을 알고는 6년간의 사랑을 끝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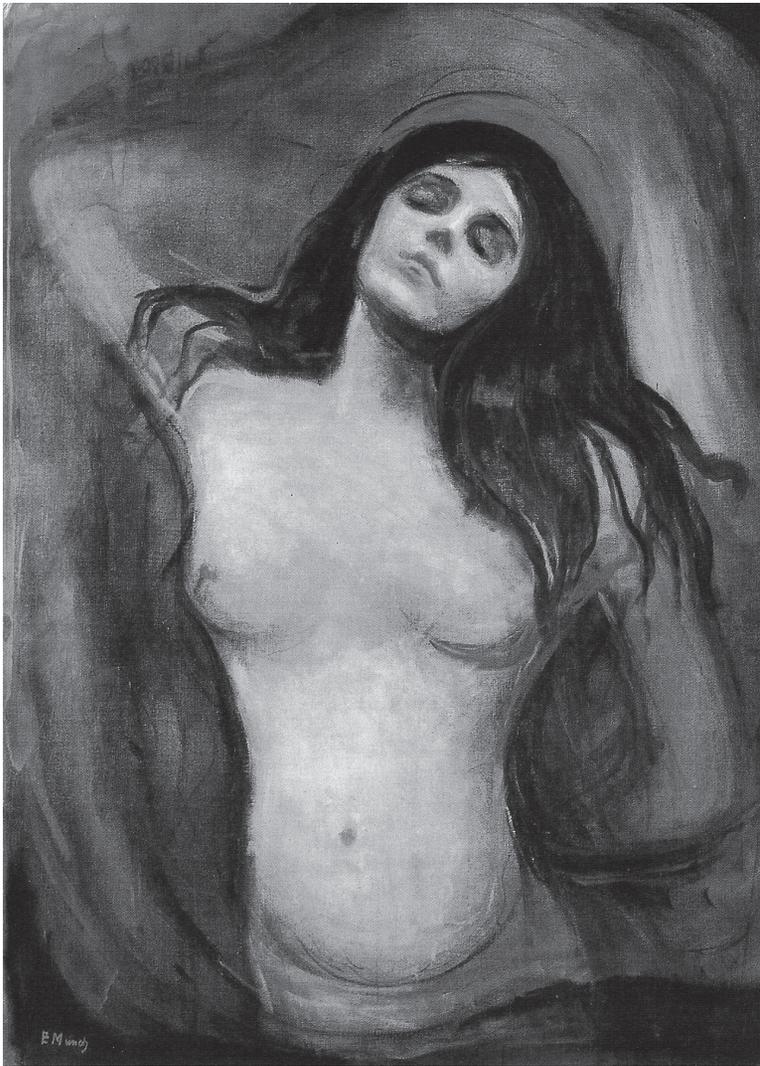
노르웨이에서 일찍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하던 몽크는 세 차례에 걸쳐 국비유학생으로 파리에 공부한다. 파리에서 2년 정도 지내고 돌아온 몽크는 노르웨이로 돌아와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2번째 개인전은 몽크에게 파리에서 유학으로 결산함과 동시에 화가로서 새로운 길을 여는 전시회였다. 전시회의 성공으로 몽크는 베를린에서 개인전을 열기 위해 노르웨이를 떠난다. 베를린에서 몽크 스캔들을 계기로 몽크는 베를린에서 머물게 된다.

베를린에서 몽크는 예술가들이 모여 밤새 토론하기를 즐겨했던 '검은 돼지' 술집에 드나들면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다그니 유엘에게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베를린을 유학을 온 다그니 유엘은 몽크의 사랑을 거부하고 몽크의 친구인 러시아 건축가와 결혼을 하지만 그 이후 러시아 청년의 총에 맞아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다.

몽크는 자신이 경험했던 사랑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출한다. 몽크의 여성관의 모티브가 되어 나온 작품이 〈마돈나〉다. 이 작품의 모델은 몽크가 사랑했던 여인 다그니 유엘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옷을 벗은 여자의 허리 아래쪽이 형체도 없이 흐르는 색채 속으로 사라지고 오른쪽 팔은 머리 뒤로 올려져 있고 왼쪽 팔은 허리 뒤로 묶인 것처럼 두르고 있다. 이런 역동적인 자세는 가슴과 복부를 내밀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작품 속 모자의 강렬한 색은 풍만한 육체와 자유 분명한 머리카락의 곡선과 어울려져 있다. 모자보다 큰 후광은 까만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어 색의 대비를 주고 있으며 여자는 깨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잠들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뭉크는 여자의 신체 각 부분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시키면서 더욱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뭉크는 이 그림 속에서 삶과 죽음을 직접 연결하는 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로 남겼는데 “당신



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고통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손을 잡고 수천의 죽음과 수천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가 지금도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1903년 <사랑의 개화와 죽음> 주제로 라이프치히 전시되었는데 그 이후 뭉크는 다섯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다그니 유엘과의 사랑은 실패로 끝났지만 베를린에 머무는 삼 년 동안이 뭉크의 생애 동안 가장 충실한 열매를 맺은 생산적인 시기였다. 동시에 문학적 철학적으로 가장 성숙한

〈마돈나〉-1894·1895년, 캔버스에 유채, 91\*70, 오슬로 뭉크 미술관 소장

시기이기도 했다.

1900년 경 병마와 고독에 시달리면서 방황하던 시기에 룰라 라르슨이라는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된다. 관능적인 매력이 넘쳐흘렀던 그녀는 부잣집 딸로서 세기만 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몽크와의 결혼을 원했지만 몽크는 결혼에 얽매이기를 거부했다. 젊은 날의 연애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그에게 결혼은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결혼 독촉으로부터 피해 다니던 중에 라르슨은 거짓으로 중병에 걸린 것처럼 꾸며 몽크를 병실로 불러드린다.

결혼을 원하고 있던 라르슨은 몽크가 병실에 들어오자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권총으로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몽크는 그녀의 자살을 막으려고 애를 쓰던 중에 권총 오발로 인해 몽크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노르웨이 전통에 따르면 가운데 손가락은 결혼반지를 끼는 손가락이다.

이 사건 이후 몽크의 생활은 더욱 더 폐쇄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몽크의 정서는 더욱 더 불안정해지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다. 몽크는 과격하게 행동했는데 동료들 권총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노르웨이를 도망쳐 독일에 머물러야만 했으며 또한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 강해지고 여자로부터 쫓긴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다.

몽크는 치료를 하기 위해 1925-1906년 겨울을 독일의 바트 일머나우와 인근에 있는 바트 엘거스부르크에서 보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몽크는 몇 점의 풍경화와 무대 미술, 자화상, 초상화를 제작하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 고통과 방황으로 보내면서도 몽크는 자신의 현실과 대조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세계를 펼쳐보인다.

에드바르트 몽크(1863~1944)는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화가로서의 삶은 그리 고통 받지 않고 순조롭게 자신의 작품세계를 추구할 수 있었지만 정신은 불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생활을 했다. 말년에 몽크는 비록 나치에 의해 퇴폐 미술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았지만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생전에 인정을 받았다. 몽크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전 재산과 1100점의 회화, 4500점의 수채와 소묘, 1만8000점의 판화 6점의 조각을 오슬로 시에 기증했다. ☺